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16일 화요일 음 1월 5일 (12월)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C. 낮 최고기온은 10~11°C로 전망된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으나, 차량 운행 시 갑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data including precipitation probability and wind speed for different times of the day.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해돋이, 해질녘), moonset and moonrise times (달몰림, 달돋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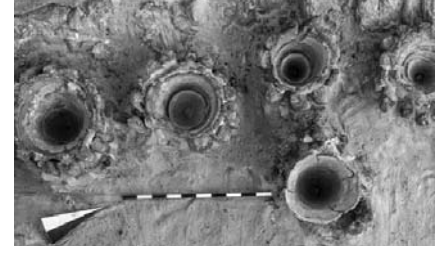
Table with UV index and other environmental factors like humidity and wind direction.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AQI) and other environmental data.

월드뉴스

파라오 시대 5000년전 맥주 공장 발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한 번에 2만2000ℓ 생산 추정



고대 유적지서 발견된 맥주 양조장.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맥주 양조장이 이집트 아비도스 고대 유적지에서 발굴됐다.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이집트와 미국 고고학자들이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450km 떨어진 나일강 서안 아비도스에서 약 5000년전 나르메르 파라오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맥주 양조장을 발굴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집트 최고유물위원회 무스타파 와 지리 사무총장은 이번 발굴된 양조장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량 생산 양조장'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고대 이집트의 양조장은 1900년대 초에 영국 고고학자들에 의해 존재가 처음 언급됐으나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었다고 관광유물부는 설명했다.

양조장은 길이 20m, 너비 2.5m, 깊이 0.4m 규모의 공간 8개로 구성됐다. 각 공간에는 맥주 원료인 곡물과 물을 섞은 혼합물을 가열하는 도기 40개 가량이 2열로 놓여있었다. 발굴을 이끈 매슈 에덤스 뉴욕대 교수는 양조장에서 한 번에 생산하는 맥주량이 2만2400ℓ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고대 이집트 양국에서 제물을 바치는 의식에 맥주가 사용됐다는 증거도 나왔다며, 이곳에서 제조된 맥주가 파라오를 위한 장사시설에서 제례 때 사용됐을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한라칼럼



송창우 농부

법 어시도 살았던 삼촌들

이번 겨울에는 예전 같지 않은 기후로 제주도도 많은 눈이 내렸다. 눈이 내릴 때 꽃망울을 맺었던 매화가 잎이 지니자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고, 금잔을 올려놓은 듯 꽃을 피운 수선화(金盞玉臺)도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다. 인간의 탐욕에서 번진 기후위기와 팬데믹 상황에서 오랜 시간 계절에 적응해온 식물의 본성을 잊지 않고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릴 적 이맘때쯤 내가 살던 동네에는 우영 밭 한구석에 잘 익은 당유자가 몇 개 달린 당유자나무 아래 수선화가 피어나는 집이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눈이 내

렸던 그 당시 초라한 그 집에 살던 남자삼촌은 아침 일찍부터 자기 집 마당을 쓸고 나서 잡 야과 골목을 지나 다른 집 앞은 물론 온 동네 눈을 치웠다. 우리 토래 아이들에게는 비료모래를 갖고 나와 모처럼 썰매를 탈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망(?)을 들이려 했다. 하지만 동네 삼촌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삼촌을 "법 어시도 살 사람"이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눈만 치우면 그런 벌명(?)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호벨이나 장래식장에서 경조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가정이 자신의 집에서 경조사를 치러야 했기에 수놓음이라는 제주의 미용양육에 남아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경조사가 있는 집에는 그 삼촌은 나타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하곤 했다. 장작을 패고, 물건을 옮기는 일을 도맡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직

장에서 그리 높은 직위도 아니고 말수도 적었으며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그 삼촌이 없으면 경조사는 물론 마을 일을 치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삼촌은 내가 살던 동네에만 계시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마을에는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삼촌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계셨을 것이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계셨을 것이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계셨을 것이다.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계셨을 것이다.

잡숫겠다는 것은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심지어 어린아들도 판단할 수 있는데도 보습니 진보니 따지며 싸움하는 게 참 기괴한 일이 아닌가. 공생을 위한 필수 덕목은 단순 소박하고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 법이 없어도 살았던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우리 삼촌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이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낮춘다. 그러면서 새소리와 벌레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며 우리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라는 어느 잡지의 한 구절이 생각나는 것도 어느 사람에게나 통하는 상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말없이 묵묵히 법 없이 사는 우리 삼촌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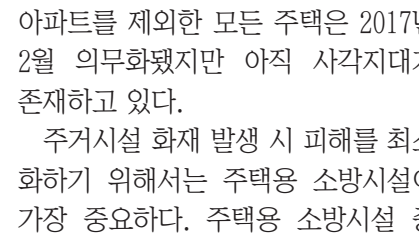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합시다



임건재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최근 코로나19로 목살을 앓고 이에 따른 피해 또한 날이 증가하고 있고 민족 대 명절인 설을 지내는 풍경 또한 예전과 같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요즘, 명절에 고향집을 방문하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는 않았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조심스럽고 아쉬움이 큰 설날이었지만 가족에게 주택용 소방시설로 따뜻한 마음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1977년, 영국은 1991년, 우리와 가까운 일본도 2006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2년 시행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린마당 겨울철 식중독 주범, 노로바이러스



고은아 제주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2017년 2월 의무화됐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주거시설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가장 중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세대·층별로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화재 초기진입에 있어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고, 화재 발생 초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연기를 감지해 화재 경보를 울려 대피를 돕는 장치이다.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천장에 부착해야 하고, 오래된 감지기는 오작동하거나 미작동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주택화재의 발생시간은 심야시간이 가장 많은데, 모두가 방심한 사이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 집에 있는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드리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식중독 원인 바이러스로써 아예류나 관리되지 않은 지하수 등에 주로 발견되며 겨울철이면 감염 확률이 더욱 강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물은 60°C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전염성이 남아 있어 반드시 85°C 이상에서 최소 1분 이상 가열해야 하며 소량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무증상 감염 환자의 접촉만으로도 걸릴 수 있으므로 환자의 구토물은 물론 환자의 소지품 접촉도 급해야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치료된 환자라도 전염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음식 조리 시 손 씻기와 조리 도구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이유로 보고 있다.

그럼 이번 겨울철도 과연 식중독 발생을 줄일 수 있을까? 지피지기 백전불패 했듯이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대비한 조리 방법, 취약 대상에 대한 위생 교육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식중독 원인 바이러스로써 아예류나 관리되지 않은 지하수 등에 주로 발견되며 겨울철이면 감염 확률이 더욱 강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물은 60°C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전염성이 남아 있어 반드시 85°C 이상에서 최소 1분 이상 가열해야 하며 소량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무증상 감염 환자의 접촉만으로도 걸릴 수 있으므로 환자의 구토물은 물론 환자의 소지품 접촉도 급해야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치료된 환자라도 전염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음식 조리 시 손 씻기와 조리 도구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이유로 보고 있다.

그럼 이번 겨울철도 과연 식중독 발생을 줄일 수 있을까? 지피지기 백전불패 했듯이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대비한 조리 방법, 취약 대상에 대한 위생 교육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식중독 원인 바이러스로써 아예류나 관리되지 않은 지하수 등에 주로 발견되며 겨울철이면 감염 확률이 더욱 강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물은 60°C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전염성이 남아 있어 반드시 85°C 이상에서 최소 1분 이상 가열해야 하며 소량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무증상 감염 환자의 접촉만으로도 걸릴 수 있으므로 환자의 구토물은 물론 환자의 소지품 접촉도 급해야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치료된 환자라도 전염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음식 조리 시 손 씻기와 조리 도구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이유로 보고 있다.

제주도정소식

청년대상 주거급여 별도 지급신청 안내
[원칙적 또는 우선유급자를 지급 받는 신규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청 및 문의: 주거급여 수급 가구주(부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정소식

2021 장애인스마트강화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1. 2. 1.(월) ~ 26. (금)
신청대상: 만 12세 ~ 만 64세 저소득층 장애인
※ 출생기준 1957. 1. 1. ~ 2009. 12. 31.

2021년 제주시 '365 아이디어 제안' 공모
공모기간: 2021년 2월 ~ 11월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분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민행복 증대 방안